

JESUS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 Contents

☼ 6월 교육 내용 .....	04
☼ 6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어린이 QT God's Time .....	08
☼ 6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어린이 QT God's Time .....	20
☼ 6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2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29
어린이 QT God's Time .....	30
☼ 6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	4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1
어린이 QT God's Time .....	42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53
☼ 위드 포토 .....	54
☼ 6월 추천도서 .....	56
☼ 6월 교육활동지 .....	57
☼ 6월 위드스티커 .....	63

# 6월 교육내용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암송 구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첫째주♥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17)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둘째주♥  
“베드로의  
고백”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6)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셋째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예요.

♥넷째주♥  
“나를  
사랑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 실천 내용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2.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해보기

# 월드 WITH

6월 첫째주  
2016년 6월 5일~11일



# Memory Time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 첫째주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누가복음 5:11
-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 누가복음 5:1-11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나요? (5절)
- ② 본문에 나온 어부였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나요? (11절)

### ★ 교육 활동 - “북한선교대회 아동부 공모전”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누가복음 5:11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 누가복음 5:1-11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삶으로의 초대가 아주 기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고 하세요. 그 삶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따라간 것만큼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떠나보아요.



Q 1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Pray 우리 가족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요.

첫째주

# GOD'S TIME 1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예베소서 5:9-14 “빛의 사람”

-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 1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 11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 12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 13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 14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본문은 빛의 열매는 무엇에 있다고 말하나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과  와   에 있습니다

2. 누가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나요? (14절)

그 리 스 다



## ★ 삶 속으로 ★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후에는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하며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해요. 삶을 살아가다보면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무엇이 선인지 알지만 그것을 택하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요. 빛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결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실 거예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삶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하며, 선과 의와 진실을 택하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6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20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본문을 읽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16-20절)

- ① 人 ○ 을 아끼세요.
- ② 주님의 ㅁ 을 깨달으세요.
- ③ 人 에 취하지 마세요.
- ④ 人 ㄹ 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 ⑤ 주님께 노래하며, ㅈ 人 하세요.
- ⑥ 하나님께 ㄱ 人 를 드리세요.

## ★ 삶 속으로 ★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쫓아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세상의 흥밋거리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주

# GOD'S TIME 3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에베소서 5:21-29 “남편과 아내”

-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 22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 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 25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 27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28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 29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1절)

“     를  
   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십시오.”



## ★ 삶 속으로 ★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를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가 맺는 모든 사람 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늘 누리게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주

# GOD'S TIME 4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에베소서 5:30-33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2 이 비밀은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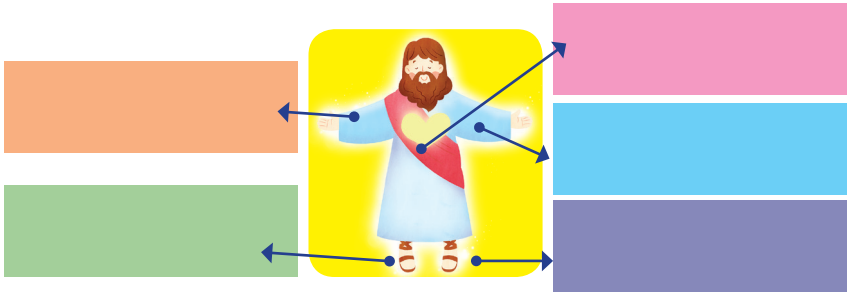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운 후 (39-43절)

"우리는     의  
 의   입니다."

2.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가족의 이름을 적어 넣어 보세요.



## ★ 삶 속으로 ★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해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완벽한 교회의 몸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또한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섬기며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될 만큼 중요하고 존귀한 관계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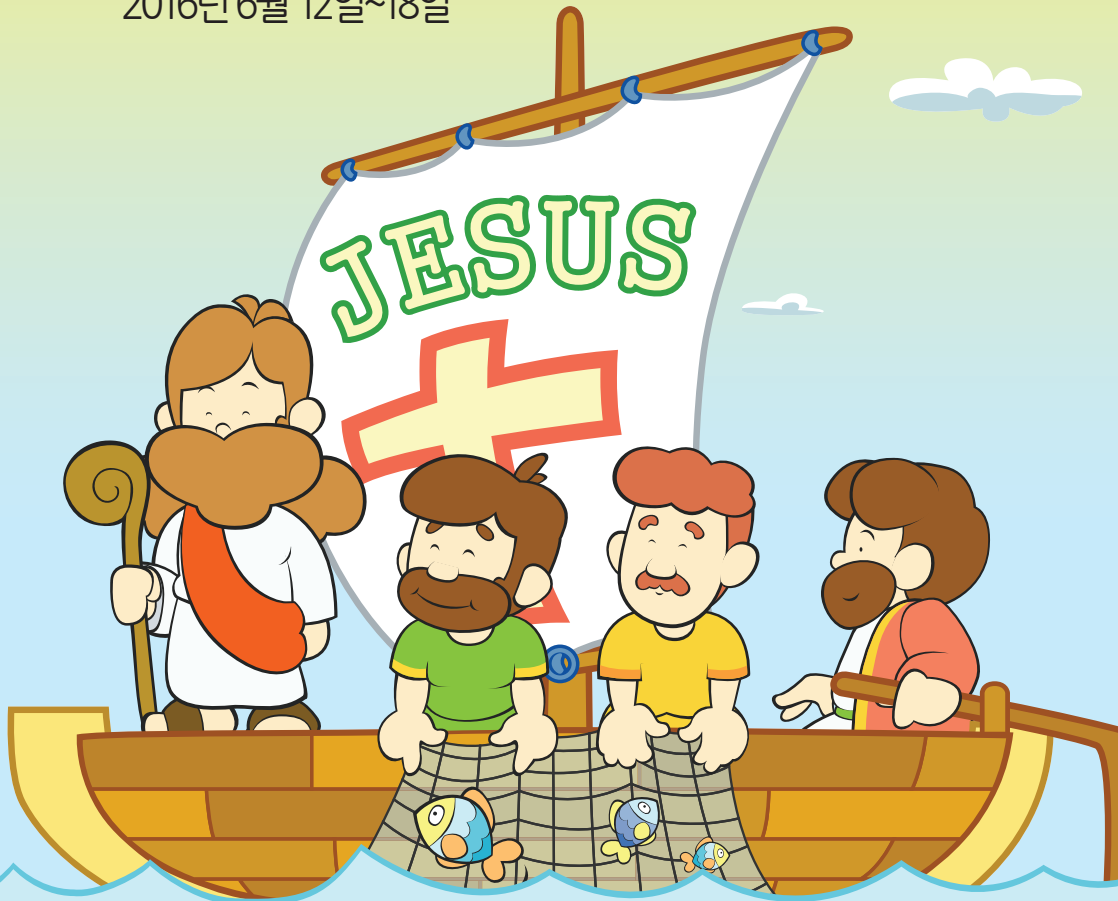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누가복음 4:18-19





# 월드 WITH

6월 둘째주  
2016년 6월 12일~18일



# Memory Time



## 베드로의 고백

### 둘째주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 성경 이야기 :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13-19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에 대해 나의 말로 고백해 보세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14절)
- ②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나요? (16절)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 ★ 교육 활동 - “예수님께 고백해요”

워드 활동지에 있는 고백카드에 내 마음 속 고백을 적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에 대해 나의 말로 고백해 보세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13-19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자신의 말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나의 말로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Q 1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Pray 우리 가족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에베소서 6:1-9 “그리스도께 하듯”

- 1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 2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 3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 4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 5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 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 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 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값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 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우리 가정에서 자녀 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쓰고 실천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1

---

2

---

3

---

## ★ 삶 속으로 ★

이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길러야 하며, 종으로 있는 사람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대해야 하고, 주인은 종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고, 살아가며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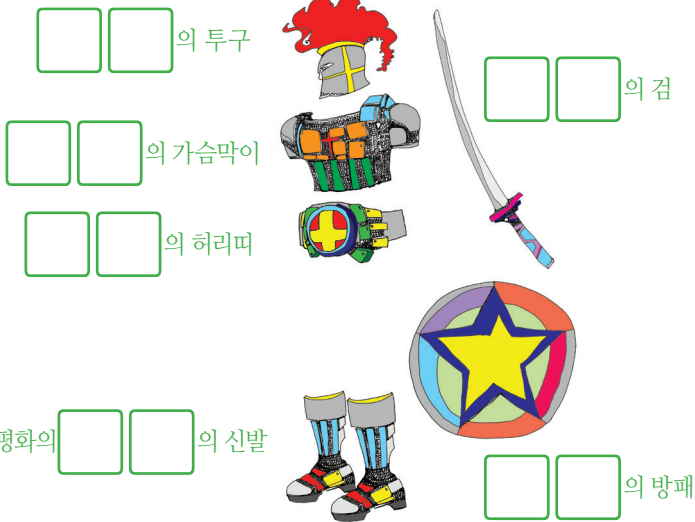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본문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어 성령의 갑옷을 완성해 보세요. (14-17절)



## ★ 삶 속으로 ★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준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노력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어요.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점점 굳세게 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 에베소서 6:18-20 “강력한 무기 : 기도”

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19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20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무엇을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나요? (18-20절)

기 도



## ★ 삶 속으로 ★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기를 당부한 다음에 이어 ‘기도’에 대해서 당부했어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되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예요.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1-7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 빌립보서”

-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 5 여러분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 7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썼나요?(1절)

빌 리 보



## ★ 삶 속으로 ★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던 순간부터 오랜 시간동안 한결같이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었어요. 세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세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누가복음 4:18-19



# 위드

WITH

6월 셋째주  
2016년 6월 19일~25일



# Memory Time



## 이미 아시는 예수님

셋째주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 마태복음 26:35
- ♥ 성경 이야기 이미 아시는 예수님 ▷ 마태복음 26:31~35, 69~75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실수하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사랑하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33절)
- ②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교육활동 - “하나님과 약속하기”

워드 활동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고, 그것을 지키기를 하나님과 약속해 보세요.

# Sweet Time

## 가족과 함께하는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35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실수하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사랑하세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이미 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6:31~35, 69~75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도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모른 척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 척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베드로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께 더욱 더 기쁨이 될 것을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야 할까요?

Pray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빌립보서 1:12-18 “바울의 간힘”

12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5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6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17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 ★ 삶 속으로 ★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상하게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전파하였기 때문이에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바울의 간함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게해주세요. 어떤 상황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19-26 “바울의 소망”

19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 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25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6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사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완성시켜 보세요.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이시니,  
   도 유익합니다.

## ★ 삶 속으로 ★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빌립보서 1:27-30 “복음에 합당하게!”

27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28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30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27절)

·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을 받는   주셨습니다. (29절)

2.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에게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보고 적어보세요.

① 게임 ② 컴퓨터 ③ TV ④ 친구 ⑤ 다른 것 :

## ★ 삶 속으로 ★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려움 올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주

# GOD'S TIME 4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만  
남  
들  
의  
기  
쁨

빌립보서 2:1-4 “섬기는 사람되기”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 2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 3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 4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말 중 잘못된 점을 체크해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2절, 4절)

①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누어 두 마음이 되어서



②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은 무시하세요.



## ★ 삶 속으로 ★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서로 경쟁하고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서로 돌보아 주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누가복음 4:18-19





# 위드

WITH

6월 넷째주  
2016년 6월 26일~7월 2일



# Memory Time



## 나를 사랑하느냐

### 넷째주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15
- ♥ 성경이야기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17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세 번이나 질문 하셨나요? (15~17절)
- 2 예수님께서서는 왜 “사랑하느냐”를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 ★ 교육활동 “이 달의 암송구절 맞추기”

워드 활동지에 있는 말씀 암송카드를 잘라 맞춰보고 여러 번 읽어 암송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 ♥ 주제 : 베드로 -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간 사람
- ♥ 암송구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15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17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사명도 저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 추위에 떨었던 그를 불러 모닥불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아침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 끝까지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지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요.



Q 1 우리 가족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아요.

Pray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요



빌립보서 2:5-11 “이 마음을 품으라”

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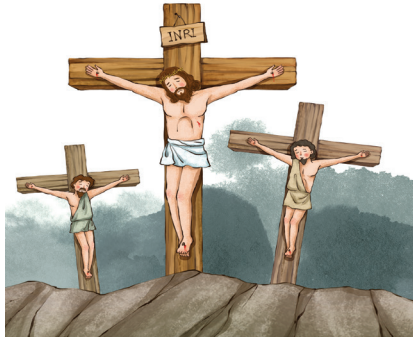
10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나요? (5절)

“       의 마음 ”



## ★ 삶 속으로 ★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12-18 “별과 같이 빛나요”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 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3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4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15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달음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 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8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 ★ 말씀 속으로 ★

1.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빈 칸을 채워보세요.(15절)

하나님의 흠없는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은 이   에서  과 같이

것입니다.



## ★ 삶 속으로 ★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잘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게 붙잡아야 해요. 지금처럼 성경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19-24 “디모데를 보냄”

19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앎으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0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23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보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빈 칸을 채워보세요. (22절)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 ★ 삶 속으로 ★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였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가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며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며 큰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6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7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29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30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 말씀 속으로 ★

1.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

---

---

## ★ 삶 속으로 ★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을 도와주었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보 출신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기쁘게 영접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기고 보살펴주었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채워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잘 챙겨주었던 것처럼 저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기보다 덮어주고 채워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 Morning Time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조심스레 안아주시며 굿모닝 인사를 해 주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을 조용하게 불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또는 앉아서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고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쁘고 신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후 친구를 꼬옥 안아주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이파이브”를 외쳐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땠는지,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조금 더워진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도 건네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7월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지 서로의 마음도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아래의 기도문을 친구와 함께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 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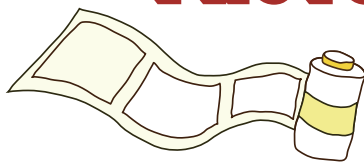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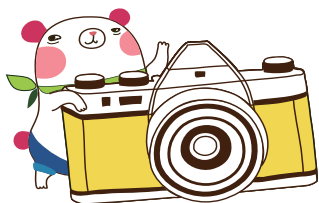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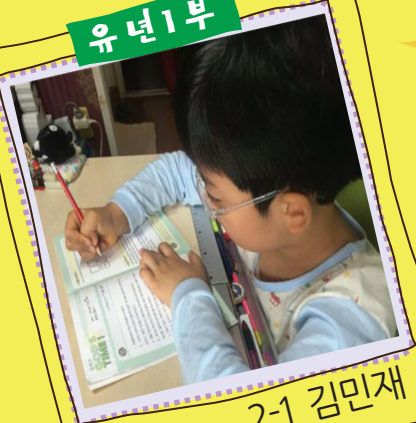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위드 포토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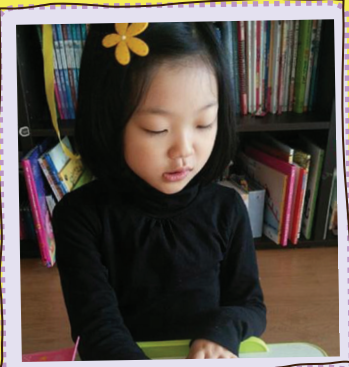


유년1부



2-1 김민재

유년1부



1-1 조운하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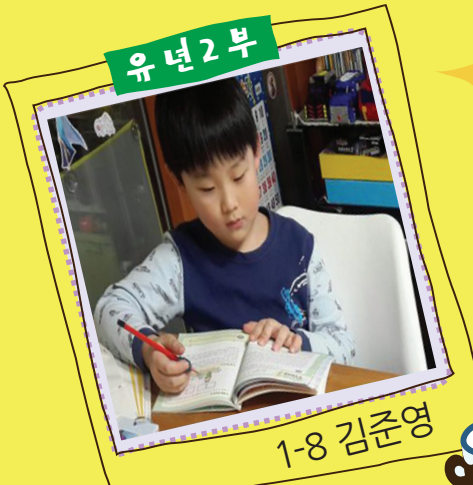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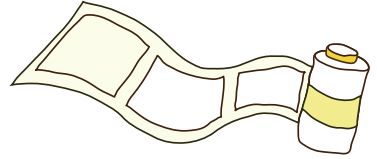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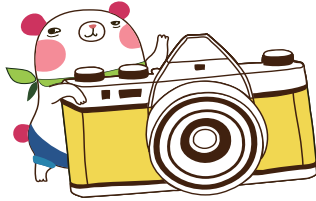
찬1-3 조서연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보내주세요~

# 유니트 PHOTO



유년2부

1-8 김준영



유년2부

1-14 이나현



유년2부

1-15 조예린



유년2부

2-7 김도윤





## 6월

제목 :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  
 지은이 : 히라타 겐야  
 그림 : 가토 구니오  
 출판 : 바다어린이



마을에는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겨 버리면 잠긴 집 위에 새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또 잠기면, 그 위에 또 새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나무 상자를 몇 개씩이나 쌓아 올린 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삼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한가운데에 있는 낚시터 뚜껑을 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살아있었을 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헤엄쳐 갈 때마다 어느 집에나, 어느 집에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은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담담하게 들려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일깨워 주는 그림책입니다. 차오르는 바닷물 때문에 한 층 한 층, 집을 쌓아 올린 할아버지. 한때 할머니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외로운 날들에 익숙해지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물속에 빠트린 연장을 찾기 위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며 옛날에 살았던 집마다에서 소중한 추억 하나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 서점가에서는 이 책을 위한 특별 코너를 설치했으며, 프랑스 ‘앙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2008’에서는 <앙시크리스털 상(최고상)> 과 <아동심사 위원상> 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제12회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 부문 대상 등을 비롯해 일본 국내외 12개 영화제에서 19가지의 상을 수상했으며,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상 역시 수상했습니다.





# 교육활동지

둘째주(6월12일)

“예수님께 고백해요”

사랑하는  
○○야(아),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예수님은.....

.....

.....

.....

.....





“하나님과 약속하기”

첫째,

\_\_\_\_\_

둘째,

\_\_\_\_\_

셋째,

\_\_\_\_\_



2016년 6월 19일





이 달의 암송구절 맞추기

시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태복음

그리스도시오

아들

주는

이시입니다

대답하여

베드로가

16:16

이르되



# STICKER



Bible study!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